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원시주의의 표현방법과 특성

김 선 영[†]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Type of Expression and Characteristics of Primitivism in 21st Century Fashion

Sun Young Kim[†]

Dept. of Fashion Design,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2009. 11. 4. 접수일 : 2010. 1. 12. 수정완료일 : 2010. 4. 10. 게재확정일)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primitivism in the modern fashion of the 21st century and, as a research method, the concept of primitivism as well as the transition of the patterns of primitivism expressed in modern art have been considered and reviewed through a variety of references. In particular,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works that have been created from 2000 to 2009 has been performed using domestic and overseas fashion and collection magazines. The characteristics of primitivism in modern fashion possess the following types of expression: First, Sensuality can be cited as one of the characteristics, either by using direct or indirect exposure of the human body, a silhouette which fits tightly to the body, or creating the effect of sensual beauty using animal fur or bird feathers. Second, Incantation: Masks symbolizing primitive incantation are used to cover the human face or primitive incantation is incorporated as a theme of hair accessories or fashion trinkets, etc. In addition, such decorations as tattoos and the body colorations of ancient tribes are reproduced in modern fashion by means of body painting, printing or other accessories, emphasizing the image of occult primitiveness. Third, Naturalness can be cited as one of the characteristics. Naturalness is emphasized in modern fashion not through artificial decorations and processing, but rather through different patterns of exposure by which natural purity can be felt or through the use of non-artificial materials which recalls primitive civilization. Forth, Playfulness is expressed in the form of graffiti or abstract letters and paintings, and the character of the play is often expressed by the use of grotesque images based on various distortions and exaggerations of the human body, the utilization of symbols of primitive incantation and body and/or facial painting. Fifth, Lastly 'folkishness is emphasized. Folk-like objects, facial decorations, exposure of the body and intense color contrasts typically represent the folkish characteristics.

Key words: primitivism(원시주의), sensuality(관능성), incantation(주술성), naturalness(자연성), playfulness(유희성).

I. 서론

현대사회가 최첨단 과학기술과 함께 사회문화적
인 측면에서도 과거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

[†] 교신저자 E-mail : ksy6341@sunchon.ac.kr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식은 보다 높은 차원의 초 인식 상태에서 사실상 원시 미개인과 같은 정신적 공황 내지는 소외감에 가득 차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현대인들은 문명화된 예술세계와 과학기술적인 매체들에서의 탈 인격화된 기계적 요인들에 대한 저항과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의 한 방편으로서 원시성의 추구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패션에 있어서도 그 주제로 부각되어 강렬한 원시의 야수성과 토속성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키고 현대인들의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시간과 문명을 초월한 감성의 표현성을 추구하게끔 한다. 과거 원시인들이 그린 동굴벽화에서 원초적인 생명력과 강한 창조정신이 엿보이는 것은 그 근원이 주술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¹⁾, 이러한 원시미술의 주술성이 현대패션 디자인 영역에 있어서 창조적 영감의 공급원이 되고 있음은 중요한 사실이다. 현대패션에서 내적 정서의 원천이 인간적 표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원시미술의 주술성과 일치한다. 또 현대패션의 비현실추구라는 새로운 경향은 그 자체가 곧 원시인이 가졌던 원초적 조형 활동의 기본적인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패션과 관련한 원시주의에 관한 선행 연구²⁾로는 특정 디자이너의 작품에 표현된 원시성에 관한 연구나 원시주의 미술의 조형성과의 비교를 통한 원시주의 양식의 복식에 관한 연구, 또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주술적 의미에서의 원시미술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 그 연구시기도 대부분 1990년대나 그 이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계의 해체와 다양한 표현영역의 확대에 표현되는 21세기 현대패션에 있어 원

시주의의 표현방법과 그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현대패션에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그리고 보다 새롭고 다양한 미적가치를 추구하는 창작디자인의 전개에 활용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하여 원시주의의 개념과 현대미술에서 표현된 원시주의 양식의 변화과정을 고찰하였고, 2000S/S부터 2009S/S까지의 오트쿠튀르 컬렉션과 파리, 런던, 밀라노, 뉴욕 컬렉션에 나타난 작품을 중심으로 Gap, Vogue, Mode & Mode 등 국내외 패션잡지 및 컬렉션 지를 통해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선정은 객관적인 기준을 위해 패션 관련 전공자 3인을 통해 현대미술에서의 원시주의의 조형성과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총 364점을 1차로 선별하였고, 이 중 원시성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사진들로 최종 선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원시주의의 개념

원시적에 해당하는 primitive는 후기 신고전주의 시기의 라틴어 primitivus에서 유래되었으며, 제일, 으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primus보다 그 의미를 강화시킨 것으로³⁾, 오늘날에 와서 미개, 단순, 초보적, 소박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사전적으로 원시적이란 첫째, 초기와 관련되며, 둘째, 무의식적 필요 욕구에 기원을 둔 정신활동, 행동과 관련되며, 객관적, 논리적 유추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셋째, 고대적 양식의 특징을 갖는 단순한, 투박한, 거칠음의 뜻이다⁴⁾.

일반적으로 원시성이란 용어는 비교되는 사물이

1) 이은경, 김양원, “현대패션에 나타난 주술적 원시미술의 조형적 특성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8권 2호 (1999), p. 328.

2) 김민자, 하지수, “현대복식에 나타난 원시주의 양식,” *복식* 21권 (1993), pp. 193-205.
김지현, “현대패션에 나타난 자연주의와 원시주의 경향에 관한 비교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이효진, “20세기 예술사조에 조명된 원시성이 현대복식에 미친 영향,” *광주대학교 민족문화예술연구소 논문집* 4권, pp. 45-76.

주명희, “지아니 베르사체의 의상에 나타난 프리미티비즘에 관한 연구,” *복식* 17권 (1991), pp. 197-207.

최재란, 유숙희, “현대복식에 나타난 원시주의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과학논문집* 21권 (1995), pp. 81-111.

3) 김민자, 하지수, op. cit., p. 194.

4)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London: G&C Merriam Co, 1971), p. 486.

나 사람보다는 덜 진전되고 덜 복잡한 어떤 것과 어떤 사람을 일컫는데, 총합성이나 세련성 그리고 기술적인 수행에 있어서 요소들의 결핍으로 부정적인 용어로 정의되어 왔으며, 문화적인 용어 안에서 원시성은 문명화에 대한 지적으로서 서구 역사의 특성 안에서 결핍을 의미한다⁵⁾. 또한 저급한 수준의 상태를 일컫는 용어로서 원시적 개념은 계몽주의 철학 이후 원시문화를 지칭하는 데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것은 원시문화가 세계 문명의 전개과정에서 초기문화로서 아직 혼란받지 않은 미숙한 상태의 것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 하겠다⁶⁾.

16세기의 사상가 Montaigne가 1592년 살육제를 풍자적으로 호호한 글을 시발점으로 해서 사상과 문학의 관심은 ‘고귀한 야만(noble savage)’ 개념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는데, 더럽혀지지 않은 인간, 지혜로우나 순진무구한 인간, 그 순수함과 단순한 사고로 특징 지워진 ‘고귀한 야만’은 편협하고 나약한 문명화된 유럽의 인위성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서양문명을 비판하기 위한 장치로 쓰인 ‘고귀한 야만’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원시주의는 18세기 정치, 철학, 종교분야의 사상의 중심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술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다⁷⁾. 한편으로 원시주의는 자본주의의 발생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에 바탕을 둔 인간의 상호 적대시에 대한 비판과 비유럽 사회 속에서의 이른바 원시 발견, 근대 유럽문명의 유일성 붕괴와 결부되어 있다.

원시주의는 19세기까지는 미개, 단순 등과 같이 경멸적 의도가 담긴 뜻으로 쓰였는데, 이는 다윈적인 진화론적 예술관과 서구인들의 자기중심적 사고와 시각에서 연유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서양 각국의 해외 식민지 개척과 관계하여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제 3세계와 같은 타 지역의 문화에 대해 서양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한 도

구로 사용함으로써 비하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었으나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새로운 시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는 물질문화와 지식의 팽배 속에 묻혀 있던 화가, 시인, 작가들의 본질적인 욕망에 자극을 받음으로써 원초적인 인간상이나 원시성의 접근, 신화의 영역 속에서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고자 한데 있으며, 또 타 문화권에 대해 긍정적인 수용방식을 갖는 포스트모던 문화의 인식론 또한 원시주의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인식의 틀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원시주의는 감정의 본능을 찬미하고 자연에 대한 존경, 형식주의에 대한 경멸, 과거와 전설에 대한 향수 및 극적 감정과 격렬한 운동감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낭만주의와도 그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20세기 초 원시주의가 예술에 대해서 쓰여졌을 때 이 말은 자연에로의 복귀, 즉 원시적 삶 속에 관념적으로 내재한 이상적 우월성을 내포하고 있었다⁸⁾. 다시 말해 원시주의는 자연이나 자연적인 것을 인간적 가치의 기준에서 보는 입장이며, 문명시대의 풍요와 세련성보다도 원시시대 인류의 소박성과 건강함을 높이 평가하는 태도를 말하며, 현대 예술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원시성의 의미는 기본원리와 독창성, 단순성, 그리고 무경험을 함축한다고 하겠다⁹⁾.

2. 현대미술과 원시주의

미술사학자들의 원시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Robert Goldwater가 1983년 발표한 ‘현대회화에 나타난 원시주의’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여기서 역사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미학적으로 과거로 되돌아갈수록 사물은 더 단순해지며 따라서 단순하기 때문에 더욱 완전하고 주요한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¹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후기인상주의, 야수주의, 입체주의, 초현실주의, 추상주의 등 기존 예술운동의 형태를 파괴해가는 경향은 무엇보다도 원

5) R. Colin, *Primitivism and Modern Art*, (London: Thames&Hudson, 1997), p. 13.

6) 최재란, 유숙희, *op. cit.*, p. 85.

7) 김민자, 하지수, *op. cit.*, p. 194.

8) 피기웅, “원시조각과 현대조각에서 나타나는 Primitivism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 22.

9) 박연실, “20세기 서구미술에서 원시성의 문제,” *미학예술학연구* 13권, p. 246.

10) G. Robert, *Primitivism in Modern Ar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6), p. 251.

시적, 이국적 예술 곧 원시주의에서 왔다고 할 수 있다¹¹⁾.

원시미술은 현대의 미술보다도 그들의 생활에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술생산품은 감상이나 미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생활필수품으로써 창작된 것이며, 따라서 원시미술은 그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소박한 기쁨이나 불안, 공포, 기원이 생활에 직결한 생명적인 힘찬 고통으로써 그것은 현대문명사회와는 다른 힘찬 생명력과 신비, 상징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어떤 단순한 양식 즉 형상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¹²⁾. 즉, 원시미술이 갖고 있는 순수성과 원초적인 생명력은 물질과 기계문명에 눌린 현대인의 정신세계에서 인간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추구의 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가치는 현대미술에 있어 새로운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하였다.

현대미술에 있어 원시주의의 효시는 상징주의 작가들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징주의는 원시인들의 사물에 대한 표현성과 유사한 점을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그들은 화면의 구성을 위해 비례를 바꾸기도 하고 원근법을 무시한 평면적 회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화면은 극도로 단순화된 상태로 표현되어졌다¹³⁾. 상징주의 대표작가인 Gauguin이 현실을 떠나 원시의 아름다움을 찾아 타이티 섬으로 떠났듯이, 이러한 원시예로의 향함은 부패한 문명사회에 물들지 않은 건강하고 야성적인 인간성의 발견에 대한 열망의 소지였으며, 지나간 과거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회귀와 인간 본질 자체일 수 있는 원시의 때 묻지 않은 순수성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Gauguin의 예술은 원시적인 분위기와 종교적인 감흥까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신화와 융합한 형태에 생생하고 정밀한 접근을 하고 있어 원시주의에 대한 집념을 강하게 표현하였다¹⁴⁾.

이러한 경향은 Matisse를 비롯한 야수주의자들에게 전승되는데, 이들은 Gauguin으로부터 많은 영

향을 받아 강렬한 색채, 짙은 윤곽선에 의한 장식적 미학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신념은 원초적 생명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도화하고 디자인화 된 원시사회에 대한 동경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사물을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고자 하였고, 마음으로 본다면은 작가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서 자유분방한 개성만이 창조적 힘이 된다는 것이다¹⁵⁾. 야수주의 작품들은 화면에 굴곡된 형태나 폐쇄된 윤곽과 같은 것이 있고, 두텁고 애매한 선과 순색의 사용, 구성상의 원근법 배제 등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표현상의 기법은 이들 화가들이 격찬하던 아동의 작품이나 표현력이 단순한 원시적 미술의 평가에 일치하는 것이다¹⁶⁾.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고갱적인 19세기의 시각을 탈피하지 못한 채 당시의 여러 관념들을 종합하는데 그쳤고, 이후 입체파는 원시미술의 강인한 조형성을 바탕으로 예술개념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20세기 초 Braque와 Picasso 등에 의해 창시된 입체파는 형태의 구성에 있어서 새로운 조형방법을 추구하였는데, 자연을 재해석한 세잔의 작품과 아프리카 원시 흑인 조각에서 강한 영감을 얻어 단순하게 지각된 사실을 사고된 사실로서 표현하였다. 이들은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구성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전통적인 가치나 원근법은 배제하였으며¹⁷⁾, 아프리카 가면의 형상을 차용함으로써 극단적인 변형을 나타내는 등 원시미술에서 주술의 원형이 지각작용에 의해 구성되어지는 것과 유사함을 나타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허무주의적 사상이 주를 이루고 있던 다다이즘이 발전하여 이루어진 예술양식으로서 초현실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추상은 무의식의 세계를 추구하며 또한 비합리성을 추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즉, 자연에서 얻어진 직접적 심상 대신에 잠재의식 속에 내재하는 심상을 새로운 비현실적 결합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주장

11) 양희석, *예술철학*, (서울: 자유문고, 1988), p. 249.

12) 이효진, *op. cit.*, p. 48.

13) *Ibid.*, p. 49.

14) 주명희, *op. cit.*, p. 199.

15) 이효진, *op. cit.*, p. 50.

16) 주명희, *op. cit.*, p. 199.

17) 이재정, 박은경,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 (서울: 예경, 2004), p. 90.

으로 이는 곧 원시성으로의 추구로 인간이 가졌던 가장 원초적인 활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예술 자체의 근본을 인간 최초의 기본적인 정신활동으로 다루는 것¹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Ernst가 “원시 문화의 예술형태란 행동이나 본능의 영역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림은 의식을 떠나 심층깊이 경험과 연결될 때 나타나는 현실로서 이미지로 하여금 무의식적 정신의 구성요소가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처럼 원시미술은 초현실주의의 새로운 자극제 역할을 하였다¹⁹⁾.

이와 같이 원시예술은 현대미술의 진로를 결정짓는 하나의 요소로써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20세기의 전위 예술가들의 개척정신 아래 원시예술의 미적인 탁월함과 개념적인 복잡성을 올바르게 인식한 결과라 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 상업주의에 물들어버린 예술세계와 과학기술적인 예술매체들의 탈 인격화된 기계적 요인들에 대한 예술가들의 저항이며, 인간성 회복을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오늘날 원시성의 개념은 모든 관념을 제거하고 순수조형을 지향하여 살아있는 인간의 본질적 이미지를 표현함으로써 생명력과 직관적 조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인식의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고 하겠다.

Ⅲ.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원시주의의 표현방법과 특성

현대패션에 나타난 원시성의 추구는 첨단 디지털 문명 속에 도식화 되어가는 현대인들에게 원시적 야수성과 토속성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켜 시간과 문명을 뛰어 넘는 자연성과 보편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은 19세기 말 서양미술사조에서 일어났던 예술가들의 원시 회귀 활동과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현대미술에서의 원시주의의 조형성과 선행 연구, 그리고 2000S/S부터 2009S/S까지 패

션컬렉션에 나타난 작품들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현대패션에 나타난 원시성의 표현방법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원시주의의 표현방법

1) 천연물의 이용과 가공

오늘날 현대패션은 표현영역의 확대와 경계초월로 폭넓은 재료의 도입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패션디자인에 원시성의 표현을 위한 자연적인 소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또 많은 디자이너들이 인간의 욕망과 파괴, 죽음, 훼손되어져 가는 자연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자연이라는 주제를 자신의 작품에 자주 반영시켰으며, 이러한 테마는 오염되어가는 지구환경을 지켜 편안하고 훼손되지 않은 상태의 원시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염원으로 동시대인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있다²⁰⁾.

현대패션에 있어 원시성을 표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원시복식의 재료를 그대로 수용하여 디자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색색의 화려한 꽃과 나뭇잎으로 치장하거나, <그림 2>와 같이 다양한 질감의 돌 문양 프린트와 함께 돌덩어리들을 목에 매달아 과거 구석기 시대로 되돌아간 것과 같은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하였고, <그림 3>과 같이 금이 가고 깨어진 돌 조각들을 이어 붙인 듯한 스커트와 머리 부분까지 이어진 탑으로 표현되었다. 자연물 중 나무 소재는 다양하게 이용되어 나타나는데, 원시자연의 이미지 표현만이 아닌 나무를 정교한 조각 작품과 같이 깎고, 크리스털이나 비즈 같은 장식적인 재료들과의 혼합을 통해 쿼터르적인 드레스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 <그림 4>와 같이 컬렉션의 테마인 ‘노래하는 대나무’를 표현하듯 가느다란 대나무를 활처럼 구부리고 촘촘히 이어 마치 가느다란 우산살을 연상시키게 하는 뷔스티에와 스커트로 표현되어²¹⁾ 자연적인 이미지를 나타냈다.

18) 주명희, op. cit., p. 201.

19) 최재란, 유숙희, op. cit., p. 87.

20) 김선영, 심준영, “현대패션에 나타난 소재의 상호텍스트성,” *한국의류학회지* 32권 5호 (2008), p. 745.

21) “2006S/S Collection,” *Vogue* 한국판 별책부록, 2005년 12월, p. 70.



〈그림 1〉 Julien
Macdonald. 2003S/S
(Vogue, 2002. 12)



〈그림 2〉 Hussein
Chalayan. 2008
F/W (Gap, v. 82).



〈그림 3〉 Fred Sathal.
2002S/S (Fashion
news, v.76).



〈그림 4〉 Issey Miyake.
2006S/S (Gap, v.
67).

또 천연재료를 가공한 것 즉 수제 종이, 구슬, 가죽, 나무열매의 씨앗, 실을 꼬아 만든 밧줄, 짚이나 가늘게 자른 가죽으로 엮은 직물 등 원시문명이 가미된 소재를 응용한 작품들도 원시성을 나타내게 된다. 이와 같이 원시인들의 창조물에서 자주 보이는 나무나 나뭇잎, 꽃잎, 돌 등 종교적이고 단순한 신체보호의 의미를 갖는 상징적인 표현매체는 원시에서의 상징적 의미를 떠나 강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새로운 매체로서 현대패션에 재등장하여 섬세한 가공기법으로 원시성과 함께 에콜로지의 이미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2) 동물이나 조류의 이미지 활용

현대패션에 나타나는 동물이나 조류 등을 테마로 한 작품들은 원시 자연의 생명력과 촉각적 느낌까지도 갖게 하며, 소재 자체가 옷감으로 사용되거나 오브제나 장신구의 역할도 수행하여 복식의 새로운 조형성을 나타낸다. 가죽이나 모피 소재가 갖는 본래의 색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염색에 따라 강렬한 원초적 이미지를 표현하게 되고, 긴 털, 풍성함과 같은 모피 특유의 동물적 촉감과 다양한 가죽 표면의 문양은 착용자를 동물로 연상하게 하는 원시성의 이미지를 갖게 하며, 단순한 생물학적 충동

이상의 것으로 여성의 인체를 관능적 이미지로 전환되게 하기도 한다²²⁾. 〈그림 5〉는 프린트를 이용하여 의상 전면에 커다란 표범의 얼굴과 문양을 표현한 것으로 유머러스하게 원시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6〉은 코트라는 하나의 아이템에 다양한 종류의 모피를 혼합하여 강한 원시성의 표현을 나타냈고, 〈그림 7〉은 모자부터 구두에 이르기까지 표범의 가죽을 이용하여 동물적 문양



〈그림 5〉 Pierrot.
2003S/S (Vogue,
200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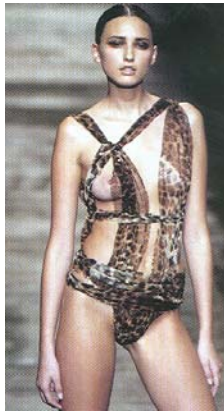


〈그림 6〉 Ungaro. 2002
F/W (Vogue, 2002. 9).

22) 김선영, “현대패션에 나타난 모피디자인의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33권 4호 (2009), p. 571.



<그림 7> Givenchy. 2007F/W (Gap, v.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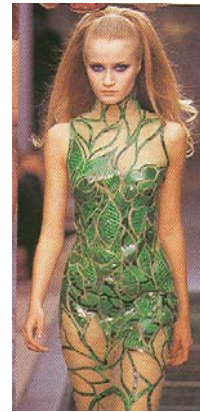
<그림 8> Yves Saint Laurent. 2002S/S (Vogue, 2001.12).



<그림 9> Roberto Cavalli. 2007S/S (Vogue, 2007.1).



<그림 10> Dolce & Gabbana. 2005 S/S (Vogue, 2004.12).



<그림 11> Versace. 2000S/S (Vogue, 2000.3).

과 질감을 살린 것으로 상의 부분에는 얇은 망사 소재 위에 표범의 가죽을 군데군데 이어 붙인 것처럼 장식적으로 표현하여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이미지로 소재 자체에서 주는 원시성의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나타낸 것이다.

또 이러한 소재의 사용과 노출 및 여성 인체를 강조하는 실루엣을 통해 보다 원초적이고 관능적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림 8>은 노출된 여

성의 인체와 함께 호피문양의 시스루 소재를 이용하여 두르고 매어 놓은 듯한 착장방법으로 표현된 것이고, <그림 9>의 이브닝드레스는 얼룩말 문양의 프린트를 이용하여 관능적인 여성의 인체를 강조하였으며, <그림 10> 역시 유혹의 상징인 뱀 가죽으로 코르셋의 레이싱 기법을 이용하여 몸에 피트한 실루엣을 연출한 것이다. 반면 <그림 11>과 같이 가공한 뱀 가죽과 투명 레이스를 이용하여 마치



<그림 12> Jean Paul Gaultier. 2008F/W (Gap, v. 82).



<그림 13> Jean Paul Gaultier. 2006F/W (Mode & Mode, v. 336).



<그림 14> Alexander McQueen. 2008F/W (Gap, v. 82).



<그림 15> Alexander McQueen. 2008F/W (Gap, v.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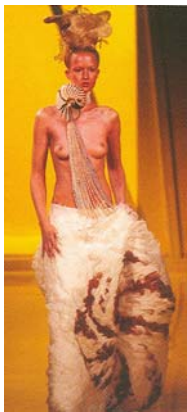
나뭇잎을 연상시키는 드레스로 직, 간접적인 노출과 소재에서 주는 절묘하므로 원시 자연의 이미지와 함께 관능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동시에 갖게 한다.

〈그림 12〉는 인조 호랑이 가죽의 트렌치코트와 드레스로 트렌치코트의 칼라부분에 호랑이의 얼굴과 네 다리까지 달린 입체적인 장식으로 마치 아프리카 초원의 야생동물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으며, 〈그림 13〉은 우아한 이브닝드레스 위에 솔더백과 같이 너구리를 목과 어깨에 매달은 모습으로 연출되어 아이러니하면서도 원시적인 느낌을 갖게 한다.

조류 역시 원시시대부터 인체 장식의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어 왔으며, 다양한 색채의 깃털은 현대 패션에서도 Jean Paul Gaultier, Alexander McQueen 등 많은 디자이너들이 백조, 독수리 깃털 등 다양한 조류의 깃털을 이용하여 작품의 조형성을 더하기도 하였다. 〈그림 14〉는 부드러운 백조 털만을 이용해 만들어진 드레스로 부드럽고 우아한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그림 15〉는 레이스를 이용한 공작의 모티브를 드레스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조류의 이미지만을 이용하여 원시자연의 이미지와 우아한 여성의 이미지를 조화시킨 것이다. 이와 같이 깃털이나 조류의 형상을 이용하여 우아하고 부드러운

여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림 16〉과 같이 완전 노출된 상반신에 깃털로 구성된 스커트만으로 연출되어 관능적이라기보다 원시미개의 자연인과 같은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또 〈그림 17〉은 드레스의 가슴부분에 독수리 깃털을 이용하여 마치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는 것 같은 독수리의 날개를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하여 반인반수의 이질적인 이미지마저 느끼게 한 것이고, 〈그림 18〉은 작은 깃털로 덮여 있는 것과 같은 드레스와 새가 머리를 감싸고 있는 것과 같이 연출된 헤어 장식으로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특히 〈그림 19〉와 같이 코트의 소매부분에 마치 살아있는 새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형상으로 구성되게 하여 장식적인 초현실성의 효과와 함께 원시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림 20〉 역시 새의 깃털을 이용한 거대한 헤어 장식으로 연출시켜 장식적이면서도 과거 원시인들의 트로피즘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또한 동, 식물이나 조류 외에도 해저, 해양생물들에 관한 높은 관심으로 바다동물이나 해초류의 문양이나, 조개, 소라, 불가사리 등을 이용한 장신구 등을 응용한 실루엣도 현대패션에서 자연적이고 원시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부각되는 부분이다.



〈그림 16〉 Seredin & Vasiliev. 2001 S/S (Gap, v. 34).



〈그림 17〉 Alexander McQueen. 2008S/S (Gap, v. 79).



〈그림 18〉 Alexander McQueen. 2006F/W (Gap, v. 70).



〈그림 19〉 Jean Paul Gaultier. 2006 F/W (Mode & Mode, v. 336).



〈그림 20〉 Christian Dior. 2002F/W (Fashion news, v.76).

원시의상에서 사용된 동, 식물이나 조류 등은 원시시대의 경우 기원이나 주문, 용기의 과시 등 주술적으로 언어나 기도를 대신하기도 하였고, 자신의 용기나 힘을 과시하기 위한 트로피즘, 또는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테러리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문명화된 오늘날의 경우 원시주의를 추구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는데, 동물의 이미지는 보통 인간의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성질을 상징하며,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현대사회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미지로의 충동을 대리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현대패션에 있어 동물, 조류에서 얻어진 소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미지의 차용, 또 문양이나 하나의 장식적인 요소 및 액세서리로 활용하여 원시성을 표현함으로써 자연의 합일을 추구하는 원시의 주술적 상징성과 함께 관능적인 이미지나 유희적이고 이질적인 그로테스크의 이미지 등 다양한 특성을 나타냈다.

3) 원시적 문양과 토속적 장신구의 활용

원시성을 나타내는 직물의 문양 형태 중 하나는 동식물을 비롯한 자연물을 주 모티브로 하여 이를 상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기호화된 기하학적 문양으로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기하학적 문양

이 갖는 각각의 요소는 과거 원시 부족의 의미 있는 언어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장식적 효과만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추상성을 지니기도 한다²³⁾.

이러한 원시적 이미지의 문양은 현대패션에 있어 프린트나 자수, 핸드페인팅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표현되는데, <그림 21>은 원시시대 동굴벽화에 나타난 것과 같은 상형문자나 그림과 같이 다양한 동작의 인간 모습이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장식적이면서도 원시성의 이미지를 갖게 한다. 또 현대패션에 나타난 원시적인 문양은 <그림 22>와 같이 어린 아이들의 낙서와 같은 그라피티의 형태로 표현되어 의상뿐만 아니라 얼굴에까지 페인팅되어 표현되기도 하고, <그림 23>과 같이 아프리카 원시부족들이 얼굴에 그렸던 문신을 셔츠에 프린트하여 주술적인 원시성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또 <그림 24>와 같이 원시적인 추상문양을 끈 장식으로 시스루 소재 위에 자수하여 마치 인체 위에 그려 놓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강렬한 원색의 끈이나 술 장식 등을 이용하여 장식함으로써 원시부족의 토속적인 이미지를 갖게 한다.

특히 문신이나 신체 채색을 통해 원초적인 원시성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림 25>는 모델의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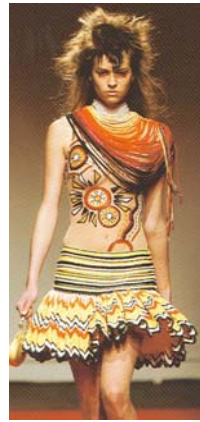
<그림 21> Giles. 2007S/S (Gap, v. 73).



<그림 22> Vivienne Westwood. 2008 F/W (Vogue, 2008. 12).



<그림 23> Bernhard Willhelm. 2009S/S (Gap, v. 11).



<그림 24> Georges Hobeika. 2004S/S (Vogue, 2000. 9).



<그림 25> Givenchy. 2000F/W (Gap, v. 70).

23) 이효진, op. cit., p. 55.



〈그림 26〉 Issa. 2006F/W (Gap, v. 82).
 〈그림 27〉 Jean Paul Gaultier. 2005 S/S (Fashion news, v.101).
 〈그림 28〉 Issey Miyake. 2006 F/W (Gap, v. 70).

과 상반신에 블랙으로 페인팅하고 다시 다양한 컬러와 문양으로 장식하여 원시적이면서도 위협적인 테러리즘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동시에 흰색의 레이스 소재 솔과 드레스로 구성된 의상과 이질적인 이미지마저 느끼게 한다. 〈그림 26〉 역시 머리에 깃털을 꽂아 장식하고 바다 전체에 강렬한 붉은 색으로 페인팅하고 원시인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양을 그린 것으로 과거 원시인들의 장식적인 피부채색을 연상시킨다.

현대패션에서 표현되고 있는 원시성의 표현기법 중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토속적인 장신구 자체가 의상 자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림 27〉은 다양한 구슬과 술 장식 등으로 구성된 드레스로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28〉은 심플한 블랙드레스 위에 색색의 끈 장식을 통해 목에서부터 가슴, 드레스 햄 라인에 이르기까지 네크리스의 역할과 의상의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한 것으로 아프리카 부족의 장신구와 같은 원시성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원시적인 문양의 프린트나 핸드 페인팅, 구슬이나 끈 장식 등으로 구성된 아프리카 부

족의 토속적인 장신구를 이용하여 원시성의 이미지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건강과 풍요의 기원, 노출된 피부에 피부 채색이나 다양한 장식으로 치장하였던 원시인들의 주술적 사고에서 생겨난 조형성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현대패션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보다 장식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토속적이고 이국적인 패션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4) 주술적 상징물의 활용

주술은 인간이 자연과 합일하기 위한 행위이며, 보다 순수하게 보다 강렬하게 스스로 자연물임을 의식하고 그 자각에 도취하기 위한 행위이다. 원시인들 주위에 있던 친숙한 동물이나 식물들의 생명력은 일종의 정령으로 그들의 주술적인 내용에 이입되고, 자연의 신비한 힘은 의인적인 이미지로 변형되어 무형의 자연이 형상으로 나타나게 하였다. 또 원시인들이 실제 사물과 그들이 제작한 회화나 조각 사이에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일종의 신앙행위와 같은 것이었다. 토템, 신앙, 방패 등이 원시미술의 주요한 조형내용으로 그것이 조형이든 가면이든 또는 추상적이든 구상적이든 거기에는 언제나 격렬한 생명의 충동이 넘쳐 흐르게 되고, 그들이 만드는 조형은 주문이자 동시에 생명의 표상이 되는 것이다²⁴⁾.

이러한 원시 주술의 상징적 조형물들을 이용하여 현대패션에서의 원시성의 이미지를 강하게 표출하는데, 〈그림 29〉와 같이 가면의 사용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원시가면은 풍요를 기원하고 자연의 힘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악귀를 퇴치하고 적으로부터 종족을 보호하기 위한 주술적인 의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초자연적인 힘을 인간의 현실세계에 실체화 시키는 역할을 하였다²⁵⁾. 이러한 가면은 현대패션에 있어 그림과 같이 패션의 이미지를 유희적이면서도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헤어 액세서리로 연출되어 원시성의 특징을 나타냈다. 또 〈그림 30〉과 같이 가면의 형상으로 된 방패가 웨딩드레스의 전면부에 부착되

24) 이은경, 김양원, op. cit., p. 331.

25) 임형란, 이미숙, “가면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8권 2호 (2004), p. 158.

어 드레스의 유희적인 장식요소로 표현됨과 동시에 신성한 결혼식에서의 악귀를 물리치고자 하는 주술적인 의미에서의 상징물로 표현되어 원시성의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림 31> 역시 드레스의 뷔스티에 부분에 표현된 가면의 형상은 의복의 구성요소와 장식적인 선을 통해 표현됨으로써 원시주술의 상징물인 동시에 유희적인 패션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가면은 원시시대 토렘에서 유래된 것이나 점차 신들을 연상시키는 가면의 형태로 변화되어 신의 세계와 인간과의 교감의 미디어로서 작용하였고, 고대 이집트인들의 경우 파라오의 시신에 영원성과 완전성의 상징인 순금으로 된 가면을 씌움으로써 불멸의 삶을 염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고대에 있어 주술적 상징은 신화나 종교적인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림 32>와 같이 강렬한 원색의 원시적인 문양으로 장식된 드레스는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을 한 전면 가면을 연출되어 원시 주술적이고 신화적인 이미지를 나타냈다. 또 <그림 33>은 커다란 전면 가면을 얼굴에 쓰고 온몸을 같은 소재로 둘러 감아 의상과 연장되는 느낌으로 활용하여 원시시대 주술적인 상징물과 같은 느낌을 준다. 이러한 고대 원시인들의 의식구조

에서 연유된 상징적 표현들은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익명인으로 존재하는 현대인의 모습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역할인물로서의 구속과 속박을 나타냄과 동시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날마다 꾸미는 자신의 가면을 벗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원시주의 특성

원시주의는 본질적으로 비문명적인 상황 속에서 의 인간생활의 초기단계에 형성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에게 신비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근원적 감성의 세계를 일깨워준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원시주의의 표현은 천연물의 이용과 가공, 동물이나 조류의 이미지 활용, 원시적인 문양과 토속적인 장신구 및 주술적 상징물 활용을 통해 현대패션에서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위한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원시주의의 표현은 관능성, 주술성, 자연성, 유희성, 토속성의 특성을 나타낸다 하겠다.

1) 관능성

인간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성에 대한 욕구가 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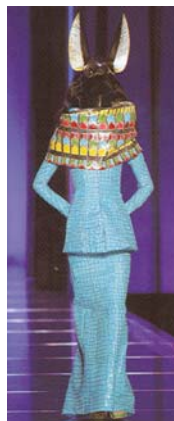
<그림 29> Seredin & Vasiliev. 2001S/S (Gap, v. 34).



<그림 30> Jean Paul Gaultier. 2005S/S (Fashion news, v.101).



<그림 31> Jean Paul Gaultier. 2005S/S (Fashion news, v.101).



<그림 32> Christian Dior. 2004S/S (Gap, v. 11).



<그림 33> Seredin & Vasiliev. 2001S/S (Gap, v. 34).

재되어 있는데, 관능성은 육감적, 성욕적, 육체적, 자극적, 퇴폐적, 쾌락적, 감각적인 것과 유사한 개념을 지니며, 성적 매력을 발휘하여 성적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이미지이다. 여성 패션에 있어 관능적 이미지 연출은 단순한 신체보호라는 기능적 개념에서 벗어나 여성의 아름다운 인체곡선을 강조하거나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장식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표현되어 왔다. 특히 소재를 통해 관능성을 표현하게 되는데 비치는 소재나 신축성 있고 광택 있는 소재 등 다양한 소재들 중에서도 동물의 털이나 가죽, 조류의 깃털 등은 원시적이면서도 관능적인 미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소재라 할 수 있다. 동물의 털이나 가죽, 깃털이 갖는 가공하지 않은 자연의 색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염색에 따라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하게 되고, 긴 털, 풍성함과 같은 동물 특유의 원시적인 촉감은 단순한 생물학적 충동 이상의 것으로 여성의 인체를 관능적 이미지로 전환되게 하였다. 모피나 가죽, 깃털의 직접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가죽의 문양이나 질감의 특성을 비치는 소재에 프린트하여 직·간접 노출의 효과를 나타냈고, 몸에 밀착되는 실루엣 등을 통해 원시동물의 이미지가 연상되는 관능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표현은 현대패션이 자기표현에 있어서 더 이상 고정 관념에 얽매이지 않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감성을 가지고 인간 내부에 잠재된 본연의 모습을 더욱 추구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이성에게 보이기 위한 도구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개성 표현이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주술성

인간의 창조성은 무의식과 공상의 소산이며, 예술은 그에 대한 상징적 언어라 할 수 있다²⁶⁾. 원시인들에게 있어서 돌, 식물, 동물, 인간 등 우주 전체가 상징으로서 잠재력을 가지며, 하나의 사물은 다른 무엇의 상징으로서 연상되며, 이러한 무의식의 심연에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시미술에서 엿볼 수 있다. 원시예술품에 동물의 털, 식물뿌리,

돌 등 자연물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자연물들의 직접적인 이식은 정령의 실존에 대한 주술적 염원으로써 커다란 힘을 갖는다²⁷⁾. 즉, 원시인들은 원초적인 생명력과 강한 창조성의 근원을 주술에 두고 있으며, 신화, 애니미즘, 토테미즘 등은 주술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 삶을 위한 인간의 본능은 주술을 낳게 하였으며, 자연에 대한 의미부여를 관념으로 체계화 할 수 없었던 원시인들에게 신의 대체물은 곧 신 자체였고, 재난의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주술적 의미의 상을 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자연 안에서 분리되지 못한 원시인들의 정신구조는 대상을 비가시적인 세계와 연결시켜 파악하였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예술작품으로 재현할 경우 극단적으로 왜곡, 강조, 단순화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비가시적인 세계와 가시적 세계를 연결해 주는 제의적 미술로 추상적 상징 형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가면으로²⁸⁾ 현대패션에서 역시 원시주술의 상징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러한 주술적 가면은 현대패션에 있어 다양한 재료와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얼굴에 착용하는 가면 외에도 헤어 액세서리나 의상의 장식적인 디테일로 표현되어 이질적인 그로테스크한 표현이나 유희적인 이미지까지도 나타냈다.

가면 외에도 방패나 포획한 동물이나 조류 등의 전리품 등을 이용한 장신구들은 원시인들에게 풍요를 기원하고 자연의 힘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악귀를 퇴치하며, 적으로부터 종족을 보호하기 위한 주술적인 의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초자연적인 힘을 인간의 현실세계에 실제화 시키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러한 요소들 역시 현대패션에 있어 바디페인팅이나 프린팅, 장신구 등으로 연출되어 원시성의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3) 자연성

현대인들은 첨단 물질문명의 지나친 발달로 인해 환경오염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

26) 조요한, *예술철학*, (서울: 경문사, 1981), p. 81.

27) 김민자, 하지수, *op. cit.*, p. 199.

28) 김선영, “현대패션에 나타난 가면의 형태와 특성,” *복식* 58권 4호 (2008), p. 16.

실 속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자연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이상향을 추구하게 된다. 또 이러한 사고는 자연을 증시하는 사고방식과 연결되어 생태학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원시성의 특성 중 자연성은 말 그대로 인간의 자연 상태 모습을 강조하는 것으로 야생의 동식물이나 자연에 대한 동경, 자연 생태계의 순수한 이미지 등을 들 수 있다. 구성방법에 있어서는 봉제를 극소화하며 단추나 지퍼 등의 여밈 장식 대신 자연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주로 한 장의 천을 몸에 휘감아 입는 스타일, 또는 원시시대의 원초적인 의상으로 최소의 부위만 가려주거나, 세련된 봉제나 마감처리 대신 깎거나 이어진 듯한 스타일, 가죽의 외곽형태를 그대로 살리는 등 태고의 순수함을 나타낸 의상들로 나타났다.

또한 원시자연인을 연상하게 하는 신체 노출로 표현되기도 하나, 이러한 노출은 에로틱한 이미지 보다는 자연 상태의 순수함이 느껴지는 양상을 나타내며, 나무나 나뭇잎, 꽃잎, 돌, 가죽, 수제 종이 등 원시문명이 가미된 소재 등을 사용하여 자연적인 특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현대패션에 있어 소재의 영역이 보다 확대되고 고정관념의 탈피를 통해 보다 자유로운 감성으로 표현되는 창작의 의지인 동시에 문명에 물들지 않는 원시세계의 동경과 자연으로의 동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유희성

Platon과 Aristoteles는 유희란 감각적이며, 동물적 불안정성의 자연적 표현이라 했다. 진지하지 않으며 오락과 카타르시스의 기능을 갖는 유희는 현실에서 도망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며, 유희의 즐거움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의미가 아닌 그 자체로 즐거운 것이다²⁹⁾. 현대패션에 나타난 원시주의의 유희적 특성은 원시미개인들의 상형문자나 그림이 추상적으로 표현되거나, 어린이이

들의 낙서와 같은 그래피티의 표현 등으로 우아함이나 세련됨과는 거리가 먼 유아적이고 본능적인 차원에서의 프린팅이나 페이스페인팅을 통해 유희성을 나타냈다

또 Schiller는 예술의 본질을 유희에 두었는데, 이러한 웃음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예술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미적 다원화 현상과 더불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실제 상황들을 희극적으로 표현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재미와 웃음을 유발하는 동시에 웃음 뒤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적 병리나 인간이 가진 모순을 꼬집어 냄으로써 충격과 의외성을 유발하여 그로테스크한 미적 효과를 제시한다³⁰⁾. 원시 미술에 있어서도 그로테스크한 표현과 함께 강조, 왜곡을 통해 예술적 표현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과장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인체부위가 해체되거나 각 부위가 뒤섞여 등장하기도 하며³¹⁾, 공간감의 표현에 있어서도 왜곡원근법이나 중첩과 반복 표현을 그 특징으로 하기도 한다. 현대패션에 있어 고대신화와 전설 속에 등장하는 신이나 동물, 원시 주술의 상징물 등을 가면이나 헤어 액세서리 등 장신구로 활용하거나 의상의 장식적인 디테일로 활용하여 그로테스크한 유희의 이미지를 나타냈고, 원시인들이 그랬던 문신이나 피부채색의 표현 등을 활용하여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갖는 유희의 특성을 나타냈다.

5) 토속성

Baudelaire는 “예술가들이 현재를 대면할 때 과거를 사용하곤 한다³²⁾.”라고 표현했듯이 많은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들의 작품 속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제 3세계의 독특한 민속적이고 토속적 이미지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 20세기부터 나타난 원시주의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잘 다듬어진 세련된 아름다움이 아닌 투박하고 소박한 토속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원시성의 특성 중 토폴리스로 대표되는 노출의 형태와 간접적인 신체 노출 그

29) 하지수, “현대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복식* 22권 (1994), p. 73.

30) 남미현, 박명희, “현대패션의 그로테스크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4권 8호, p. 156.

31) 서성록, *현대미술속의 원시적 성격과 그 의미 공간*, (서울: 현대미술, 1990), p. 44.

32) R. Martin, H. Koda, *The Historical Mode*, (New York: Rizzoli, 1989), p. 7.

리고 아프리카나 인디언이나 아마존 원시 밀렵 부족들의 신체장식이나 토속적인 액세서리, 페이스 장식 등은 토속적인 특성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또 이들의 복식에 나타난 원시적인 문양을 프린팅하거나 자수하여 이국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구슬, 끈, 깃털 장식 등을 통해 장신구가 의상으로 전환되어 표현되거나 의복의 한 부분을 강조하여 나타낼 수 있는 장식적인 요소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강렬한 원색의 대비로 원초적인 생명력을 표출하고, 문명의 세례를 받지 못한 낡고 퇴색한 것 같은 색상 또는 사막과 황토의 색 등을 이용하여 토속적인 원시성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아프리카와 같은 원시부족풍의 토속

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이러한 표현은 아직도 문명이 닿지 않는 자연의 한 복판에서 사는 사람들의 자유분방함과 단순함 속에서 창조된 문양이나 장식들을 통해 원시로의 회귀와 동경을 갈망하는 현대인의 열망의 소지이며, 보다 독창적인 디자인 전개를 위한 창작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IV. 결 론

첨단 과학문명의 이기와 인간성 소외의 모순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원시예의 향수와 동경을 추

<표 1>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원시주의의 표현방법과 특성

	형태	소재와 색상	문양과 장식	표현방법
관 능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 간접적인 노출 인체곡선 강조 몸에 꼭 맞는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택, 시스루 소재 모피, 가죽, 깃털 자연색, 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문양의 프린팅 다양한 가죽의 질감을 프린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 조류의 이미지 활용
주 술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왜곡과 과장 다양한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연자연물 이용 다양한 소재 활용 강렬한 색채의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 나무 등 천연물 이용 동물이나 조류의 박제 문신, 피부 채색 방패나 원시가면을 헤어 액세서리나 의상의 장식 요소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연물의 이용과 가공 동물, 조류의 이미지 활용 주술적 상징물 활용
자 연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부만을 가리는 원초적 형태 봉제 극소화 몸에 두르는 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연 소재 나무줄기, 꽃잎, 돌 등 자연물 이용 단순하고 생태학적인 자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물 장식 토플리스 이미지 연출 세련된 술기 처리 대신 가죽의 자연스러운 형태 외곽선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연물의 이용과 가공
유 회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왜곡과 과장을 통한 유머러스하고 그로테스크한 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질적 소재의 배합과 절충 개방적 색채와 원색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대신화나 전설 속의 신, 동물 등을 가면, 헤어 액세서리로 연출 바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이용 상형문자나 그림의 추상적 표현, 그래피티 초현실적인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 조류의 이미지 활용 주술적 상징물 활용
토 속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 간접적인 노출의 형태 아프리카나 아마존 원주민풍의 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속적 소재 강렬한 원색의 대비 사막, 황토 등 토속적 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국적, 자연적 문양 구슬, 술, 깃털 장식 아프리카, 아마존 밀렵 원시부족의 문신이나 피부 채색을 바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으로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시적인 문양과 토속적인 장신구 활용

구하게 되었고, 현대패션 역시 이성보다는 인간의 감정과 자연적인 것을 추구하는 원시적인 성향의 구체적인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원시주의의 개념과 현대미술에서의 원시성을 고찰하고, 다양한 스타일과 표현영역의 확대로 표현되는 21세기 현대패션에 있어 원시주의의 표현방법과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현대미술에 있어 원시성은 상징주의 작가들의 작품에서부터 시작하여 초현실주의 및 추상주의 작가들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강렬한 색채와 원시미술의 기호와 상징으로 기존의 개념을 탈피한 원초적 생명의 이미지와 토속적이고 추상적인 상징의 이미지까지 인간 본성이 지닌 필연적인 요소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원시성은 현대패션에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어 나타났는데, 첫째, 천연물의 이용과 가공이다. 나ant가 지나 나뭇잎, 꽃잎, 돌, 가죽 등 단순한 신체보호의 의미를 갖는 상징적인 표현매체는 원시에서의 상징적 의미를 떠나 강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새로운 매체로서 현대패션에 재등장하여 섬세한 가공기법으로 원시성과 함께 에콜로지의 이미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둘째, 동물이나 조류의 이미지를 활용한 것이다. 동물의 가죽이나 털, 깃털 등 직접적인 소재로의 사용과 이미지의 차용, 문양으로 사용하거나 하나의 장식적인 요소 및 액세서리로 활용하여 원시성을 표현하였다. 셋째, 원시적 문양과 토속적 장신구의 활용이다. 원시적 이미지의 문양은 현대패션에 있어 프린트나 자수, 핸드페인팅에서의 의 형식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표현되었으며, 구슬이나 술, 끈 장식 등으로 구성된 아프리카 부족의 토속적인 장신구를 이용하여 원시성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넷째, 주술적 상징물 활용이다. 방패나 가면, 고대신화에 나오는 신이나 동물의 형상 등을 이용하여 의복에 장식적 요소로 이용하거나 액세서리로 연출시킴으로써 유희적이면서도 강한 원시성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유형을 갖는 현대패션에서의 원시주의는 관능성과 주술성, 자연성, 유희성, 토속성의 특성을 나타냈다. 첫째, 관능성으로 인체의 직, 간접적인 노출, 몸에 꼭 맞는 실루엣, 그리고 다양한 소재들 중에서도 특히 동물의 털이나 가죽, 조류의

깃털 등을 이용하여 원시적이면서도 관능적인 미의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둘째, 주술성이다. 원시주술적 상징의 가면은 얼굴에 착용되거나 헤어 액세서리, 패션 소품 등으로 연출되었고, 원시부족들의 문신이나 피부채색 등의 장식이 현대패션에 있어 바디페인팅이나 프린팅, 장신구 등으로 연출되어 주술적인 원시성의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셋째, 자연성으로 인위적인 꾸밈과 가공이 아닌 자연의 순수함이 느껴지는 노출의 양상과 원시문명이 연상되는 천연자연의 소재 등을 사용하여 자연적인 특성을 강조하였다. 넷째, 유희성이다. 원시미술에서 나타나는 우연성이나 무의식적 상태의 표현과 같이 그래피티의 형태나 추상적인 문자, 그림 등을 통해 표현되었으며, 인체의 왜곡과 과장, 원시주술의 상징물 활용, 원시인들의 피부채색이나 문신 등이 바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의 표현을 통해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갖는 유희의 특성을 나타냈다. 다섯째, 토속성이다. 토폴리스로 대표되는 노출의 형태와 간접적인 신체 노출 그리고 이와 함께 아프리카나 인디언, 아마존 원시 밀림 부족들의 신체장식이나 구슬, 끈, 술 장식 등을 이용한 토속적인 액세서리, 페이스 장식, 강렬한 원색의 색채대비 등으로 토속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이성보다는 인간의 감정과 자연적인 것을 추구하여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패션에서의 원시성 표현은 보다 복잡해져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상실되어가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또 보다 독창적이고 새로운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창작디자인의 전개에 다양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민자, 하지수 (1993). “현대복식에 나타난 원시주의 양식.” 복식 21권.
- 김선영 (2008). “현대패션에 나타난 가면의 형태와 특성.” 복식 58권 4호.
- 김선영 (2009). “현대패션에 나타난 모피디자인의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33권 4호.
- 김선영, 심준영 (2008). “현대패션에 나타난 소재의 상호텍스트성.” 한국의류학회지 32권 5호.

- 김지현 (1994). “현대패션에 나타난 자연주의와 원시주의의 경향에 관한 비교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미현, 박명희 (2004). “현대패션의 그로테스크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4권 8호.
- 박연실 (2001). “20세기 서구미술에서 원시성의 문제.” *미학예술학연구* 13권.
- 서성록 (1990). *현대미술 속의 원시적 성격과 그의 미 공간*. 서울: 현대미술.
- 양희석 (1988). *예술철학*. 서울: 자유문고.
- 이은경, 김양원 (1999). “현대 패션에 나타난 주술적 원시미술의 조형적 특성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8권 2호.
- 이재정, 박은경 (2004).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 서울: 예경.
- 이효진 (1995). “20세기 예술사조에 조명된 원시성이 현대복식에 미친 영향.” *광주대학교 민족문화예술연구소 논문집* 4권.
- 임형란, 이미숙 (2004). “가면을 활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8권 2호.
- 조요한 (1981). *예술철학*. 서울: 경문사.
- 주명희 (1991). “지아니 베르사체의 의상에 나타난 프리미티비즘에 관한 연구.” 복식 17권.
- 최재란, 유숙희 (1995). “현대복식에 나타난 원시주의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과학논문집* 21권.
- 피기웅 (1993). “원시조각과 현대조각에서 나타나는 Primitivism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지수 (1994). “현대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복식 22권.
- Colin, R. (1997). *Primitivism and Modern Art*. London: Thames and Hudson.
- Martin, R. and H. Koda (1989). *The Historical Mode*. New York: Rizzoli.
- Robert, G (1966). *Primitivism in Modern Ar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971). London: G&C Merriam Co.
- 2006S/S Collection (2005. 12). *Vogue* 한국판 별책 부록.